기술 2026-104 2026.08.13.

이 보고서는 시가총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형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산업재

금강공업(01428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나이스평가정보㈜ 작 성 자 민충기 연구원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2124-68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공업(014280)

강관에서 모듈러까지, 건설·산업 소재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소재·솔루션 메이커

기업정보(2026.08.10 기준)	
대표자	전장열, 전호준
설립일자	1979.08
상장일자	1988.09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강관 제조업
주요제품	강관, 판넬폼, 모듈러 주택

시세정보(2026.08.10 기준)	
현재가(원)	4,150
액면가(원)	1,000
시가총액(억 원)	1,251
발행주식수	29,329,357
52주 최고가(원)	8,470
52주 최저가(원)	3,420
외국인지분율	2.70
주요주주	안영순

■ 강관·폼웍을 뿌리로 한 46년 종합 소재 메이커

금강공업(이하 동사)은 1979년 8월에 설립된 건축자재 전문 기업으로 배관용·구조용 강관 제조와 폼웍시스템(알루미늄폼·갱폼·시스템폼·특수폼) 제조·임대, 그리고 미래 주거 패러다임을 바꿀 모듈러 주택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성장해 온 강관 및 건설용 가설자재 종합 메이커로 파악된다. 오랜 업력과 기술력 및 제조 인프라를 바탕으로 종합 건축자재 생산으로 입지를 확보한데 이어 국내 폼웍 업계 최초로 폼웍시스템을 수출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1988년 9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부산 사하구 본사를 거점으로 부산·언양·음성·진천·창녕·보은 등 국내 다수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 6대 사업으로 확장된 다각화 포트폴리오

동사는 창업 사업인 강관·판넬(알루미늄폼)·가설재, 모듈러 건축에 더하여 사료, 선박엔진, 단조로 사업을 확장하며 경기 방어력을 갖춘 다각화 구조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려산업㈜(사료), ㈜케이에스피(선박엔진·단조), 삼미금속㈜(단조)·대영산업㈜(단조 가공) 등 종속회사를 통해 전방산업이 상이한 사업들을 병행함으로써 특정 업황 변동 위험을 분산하고 있다. 또한 각 사업부문이 건설, 축산, 조선, 방산, AI 데이터센터 관련 제조업 등 서로 다른 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특정 산업의 경기 침체가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동사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국내외 16개 종속회사를 거느린 그룹 체계

동사는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상장 3사를 포함한 16개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한 그룹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베트남·인도·말레이시아·케냐 등 해외 법인을 통해 폼웍 임대·판매 사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확장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8,568.9	17.55	665.8	7.77	447.9	5.23	10.09	4.03	136.75	1,283	14,331	4.43	0.40
2024	8,013.5	-6.48	330.5	4.12	168.4	2.10	1.40	1.47	132.69	184	14,439	21.14	0.27
2025	8,021.6	0.10	105.0	1.31	-373.5	-4.66	-11.82	-3.18	138.48	-1,494	12,448	N/A	0.49

금강공업(014280)

기업경쟁력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 강관·판넬·가설재·사료·선박엔진·단조·모듈러 등 전방산업이 상이한 6대 사업 병행 - 건설·조선·축산·방산 등 산업별 경기 사이클 분산으로 실적 변동성 완충 - 상장 3사 포함 16개 종속회사 기반의 그룹 시너지 확보
핵심 기술·설비 진입장벽	- 알루미늄 용해–주조–압출 일관생산 체계를 자체 보유해 폼웍 임대사업 진입장벽 형성 - 저속엔진 배기밸브 전(全)공정 자체 수행 및 글로벌 인증 2종 보유(그룹) - 폼웍·가설·모듈러 분야 60여 건의 지적재산권으로 기술 우위 뒷받침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폼웍·가설·모듈러 솔루션	- 알루미늄폼·갱폼·특수폼과 조선용 LNGC 특수족장, 공장 사전제작형 모듈러 건축 시스템을 자체 설계·제조·임대하는 건설 가설자재 종합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정밀 소재·기계부품	- 흑관·백관·아연도강관 등 강관과 선박용 저속·중속 엔진밸브, 방산·플랜트용 형단조 부품을 그룹 차원에서 제조·공급하는 정밀 소재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금강공업 알루미늄 폼웍시스템>

시장경쟁력

폼웍(거푸집) 시장 지위	- 국내 알루미늄폼 임대시장에서 약 26%의 점유율(동사 추정)로 2위권을 유지하며, 세계 알루미늄 거푸집 시스템 시장은 2024년 약 59.3억 달러에서 연평균 5.3% 성장이 전망된다.
모듈러 성장 시장	-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시공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2023년 약 8,059억 원에서 2030년 최대 4.4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박엔진밸브 과점 지위	- 저속엔진 배기밸브 전공정을 자체 수행하는 국내 유일 업체(그룹)로, 중속엔진밸브 국내 시장에서 약 60~70%의 점유율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단조부문 과점 지위	- 현대차 상용차부문에 프론트액슬빔, 크랭크샤프트를 독점 공급중이며, 이외에도 선박엔진의 핵심부품인 커넥팅로드 및 발전소의 터빈블레이드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사료부문 과점 지위	- 전자동 공정제어 시스템과 사양관리 지도 등 축산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내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금강공업(014280)

I. 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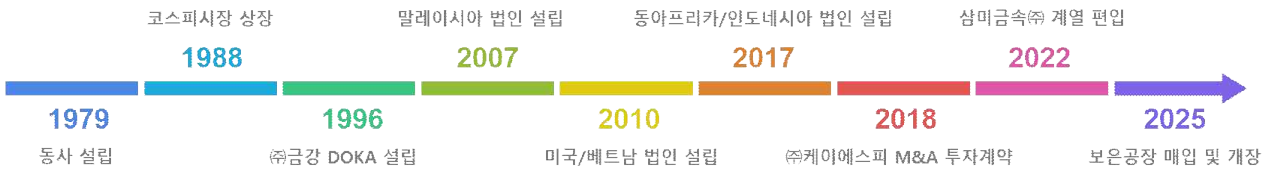
강관·폼웍 뿌리의 다각화 종합 소재 메이커

동사는 1979년 설립된 강관·폼웍시스템 종합 메이커로, 사료·선박엔진·단조·모듈러로 사업을 확장한 중견 그룹이다. 6대 사업과 16개 종속회사를 기반으로 경기 방어력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 기업 개요 및 주요 연혁

동사는 1979년 설립된 배관용·구조용 강관과 폼웍시스템을 양대 축으로 성장해 왔다. 1988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2010년대 들어 미국·베트남·인도·케냐 등 해외 법인을 잇달아 설립하며 폼웍 임대사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확장하였다. 아울러 2018년 회생기업 ㈜케이에스피 인수, 2022년 삼미금속㈜ 지분 인수, 2025년 대영산업㈜ 편입을 통해 선박엔진·단조 부문을 강화하는 등 인수합병 중심의 사업 다각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확장으로 동사는 상장 3사를 포함한 16개 종속회사를 거느린 종합 소재 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림 1. 주요 연혁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주) 재가공

■ 대표이사 주요 이력

동사는 전장열·전호준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전장열 대표이사는 경신고등학교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주철관공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1979년부터 현재까지 동사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강관 및 건설용 가설재, 폼액(Formwork), 모듈러 전문 업체로 이끌고 있다. 전호준 대표이사는 미국 Suffolk University를 졸업한 후 2006년 동사에 입사하였으며, 2023년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 금강공업과 계열사 고려산업 사장을 겸직하며 그룹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사내이사로는 전장열 회장과 전호준 부회장이 경영 전반을 조율하고 이범호 부회장이 ㈜케이에스피 대표를 겸하며 기계부품 부문을 지원하는 등 오너가(家) 중심의 안정적 지배구조와 실무형 전문경영이 결합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장기 투자와 사업 재편이 요구되는 중후장대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구조이다.

■ 주주 현황

동사의 주주 구성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안정적 지배지분을 확보한 오너가(家) 중심 구조로 확인된다. 2026년 6월 기준 최대주주는 보통주 3,177,670주(10.83%)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특수관계인들은 보통주 8,430,387(28.7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에 지분율 합계는 보통주 기준 39.58%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 주주 현황

자료: 동사 대량보유상황보고서(2026.06.), NICE평가정보㈜ 재가공

■ 사업 분야

동사는 강관, 판넬, 가설재, 모듈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종속회사를 통해 사료사업(고려산업), 선박엔진 사업(케이에스피), 단조 사업(삼미금속)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표 1. 주요 사업 분야

사업부문	품목	사업 내용
강관	흑관·백관·CGI·OCTG	배관용·구조용 강관의 제조 및 판매
판넬	알루미늄폼·갱폼·시스템폼	폼웍시스템의 제조·판매 및 임대
가설재	조선용 발판·클램프	조선용 가설재의 제조 및 판매
사료	배합사료	가축용 배합사료의 제조 및 판매
선박엔진	선박용 엔진밸브	저속·중속 엔진밸브의 제조 및 판매
단조	형단조 제품	상용차, 선박엔진, 발전소 등의 형단조 제품 판매
모듈러·기타	모듈러 제품 등	모듈러 제조·판매 및 각종 서비스 제공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 재가공

강관 부문은 상하수도 · 공업용수 · 건축 · 교량 등에 사용되는 배관용 및 구조용 강관을 생산하며, 자동용융 아연도금 라인을 기반으로 한 아연도 백관 제품을 경쟁 우위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도 대미(對美) 수출 확대를 통해 물량 방어에 나서고 있으며, 원재료인 HR COIL의 안정적 조달 능력이 부문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판넬(폼웍) 부문은 아파트 골조공사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거푸집을 제조·판매·임대하는 사업이다. 알루미늄폼은 경량·고강도·100% 재활용성이라는 특성으로 인건비 절감과 공기 단축, 건설폐기물 저감 효과를 제공하며, 임대자산 보유량과 대규모 보수·생산공장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구조이다. 동사는 알루미늄 용해-주조-압출 공정을 아우르는 일관생산 체계를 자체 구축하여 시장 내 강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케냐 등 전략 거점을 중심으로 통합 영업망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법인과 베트남법인은 현지에 각 2만1천평, 2만7천평 규모의 보수·생산공장을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법인은 베트남 내수시장은 물론 인도, 중동, 아프리카, 남미, 몽골 등 수출 생산기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가설재 부문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조선용 발판과 클램프를 제작하며, 특히 LNG운반선 탱크 내부단열재 부착용 특수족장은 아파트 10층 높이에 2만 개 이상이 조립되는 고난도 시스템 제품으로, 국내 최대 종합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다. 모듈러 부문은 공장에서 공정의 약 80%를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친환경 건축 시스템으로, 동사는 자체 공법 특허와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시공 실적을 보유한 선도 사업자로서 정부의 오프사이트 건설(OSC) 활성화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사료 부문은 종속회사 고려산업㈜을 통해 가축용 배합사료를 제조·판매하며, 전자동 공정제어 시스템과 사양관리 지도 등 축산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내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선박엔진 부문은 종속회사 ㈜케이에스피가 선박용 저속·중속 엔진밸브를 생산하며, 저속엔진 배기밸브 전(全)공정을 자체 수행하는 국내 유일 업체로서 글로벌 엔진제조사와 안정적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단조 부문은 삼미금속㈜을 통해 프론트액슬빔, 크랭크샤프트를 생산하여 현대차 상용차부문에 독점 공급중이며, 이외에도 선박엔진의 핵심부품인 커넥팅로드 및 발전소의 터빈블레이드 등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AI 데이터센터용 중속엔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선박엔진 부문 종속회사인 ㈜케이에스피와 단조 부문의 삼미금속㈜·대영산업㈜에서 생산하는 중속 엔진용 엔진밸브 및 커넥팅로드에 대한 수요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종속회사들은 유사제품들을 장기간 생산·공급 하고 있으며, 엔진설계사들로부터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기존의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신뢰도를 축적해 신제품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구축의 수혜가 기대된다.

동사는 2025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조선 슈퍼사이클을 배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5년 7월과 2026년 6월 충북 보은 소재 모듈러 전용 생산공장을 신규 매입해 생산기지를 확충하는 한편, 진천공장 내 모듈러 R&D센터를 중심으로 강재 모듈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12개 주요 제조기업과 함께 모듈러건축협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종속회사 ㈜케이에스피는 대영산업㈜ 지분을 취득하며 단조 부문을 강화하였다.

향후에는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LH OSC 로드맵에 따른 공공 발주 증가가 판넬·모듈러 사업의 실적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의 철강 50% 고율 관세가 강관 수출 채산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동사는 해외 생산기지 확충과 현지 파트너십, BIM·AI 기반 설계 최적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방어할 계획이다. 아울러 LNG운반선 중심의 조선 수주 호조가 가설재·선박엔진 부문의 중장기 수요 기반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된다.

Ⅱ. 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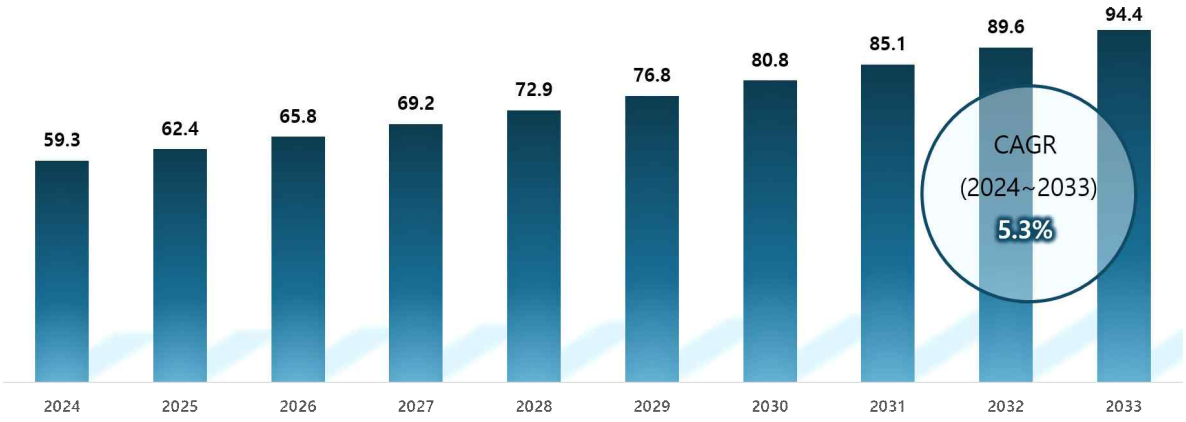
정책·조선 사이클이 견인하는 폼웍·모듈러 성장 시장

동사의 핵심 목표시장인 폼웍(거푸집)·모듈러 건축 시장은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친환경·공기단축 수요를 배경으로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조선용 가설재·선박엔진 시장 또한 LNG선 발주 사이클과 맞물려 수요 기반이 견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성장률

Market Reports World, 「Aluminium Formwork System Market」 통계자료(2025)에 따르면, 알루미늄 거푸집(폼웍) 시스템 시장의 2024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59.3억 달러에서 연평균 5.3%씩 증가하여 2033년에는 약 94.4억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세는 고층 주거 확대, 친환경 · 재활용 소재 선호, 모듈러 · 조립식 공법 전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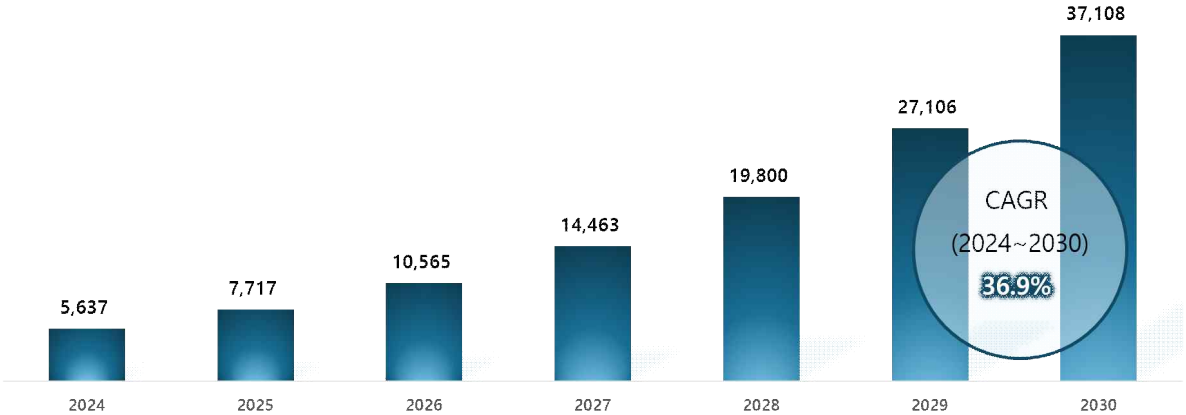
그림 3. 글로벌 알루미늄 거푸집(폼웍) 시스템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자료: Market Reports World, 「Aluminium Formwork System Market」 통계자료(2025) NICE평가정보㈜ 재가공

한국철강협회 모듈러건축위원회 통계자료(2025)에 따르면, 국내 철강 모듈러 건축 · 주택 시장은 2024년 약 5,637억 원에서 연평균 36.9%씩 증가하여 2030년에는 약 3.7조 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의 OSC 활성화 정책과 공공 발주 확대에 힘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4.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 및 전망 **(단위: 억 원)**



자료: 한국철강협회 모듈러건축위원회 통계자료(2025), NICE평가정보㈜ 재가공

금강공업(014280)

■ 시장 구조 및 산업동향

폼웍·모듈러 시장은 정부 부동산·주택정책과 성장 고리가 직결된 정책 민감형 시장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2025년 9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약 135만 호의 신규 주택 착공과 연평균 27만 호 규모의 공급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노후 공공청사·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착공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9·7 대책에서 모듈러 공법을 주택 공급속도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공식화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가 병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알루미늄 거푸집은 100% 재활용성과 공기 단축·안전성 강화라는 특성으로 글로벌 ESG 대응형 제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신흥국 도시화 및 인프라 투자 확대와 맞물려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부

자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기술 개발 및 경쟁 환경

폼웍·모듈러 산업은 초기 투자 규모와 임대자산 보유량, 설계·시공 기술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자본·기술 집약형 산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Doka, PERI 등 유럽계 거푸집 전문기업이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급속한 도시화와 정부 지원 건설 프로젝트에 힘입어 채택률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알루미늄 용해-압출 일관생산 및 대규모 임대자산을 보유한 소수 사업자 중심으로 과점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BIM·AI 기반 설계 최적화와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통한 모듈러 고도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동사는 폼웍과 모듈러를 아우르는 통합 라인업과 자체 공법 특허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표 2. 국내 경쟁업체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 내용
삼목에스폼㈜	• 국내 알루미늄폼 임대시장 점유율 1위(약 45%)의 폼웍 전문기업
현대알루미늄㈜	• 알루미늄 거푸집 제조·임대를 영위하는 폼웍 부문 경쟁사
㈜유창이앤씨	• 2003년 국내 최초 모듈러 시스템 사업을 개시한 모듈러 전문기업

자료: 업체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NICE평가정보㈜ 재가공

III. 기술분석

폼웍·모듈러·정밀부품을 아우르는 60여 건의 IP 기반 종합 기술력

동사는 알루미늄 일관생산과 폼웍·가설·모듈러 분야 자체 특허, 그룹 차원의 선박엔진밸브·형단조 정밀가공 역량을 결합한 종합 소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총 61건의 지적재산권과 글로벌 인증이 사업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폼웍시스템 및 조선용 가설재 기술

동사는 알루미늄폼 · 갱폼 · 시스템폼 · 특수폼을 아우르는 폼웍 전 라인업을 자체 설계 · 제조한다. 건설현장 안전과 시공 효율을 좌우하는 인양 · 승강 · 지지 기술이 축적되어 있으며, 이는 가설대 승강장치(10-1040033), 가설대 조임장치 및 방법(10-1062138), 거푸집 작업발판 인양방법(10-1151866), 미들빔 거치용 브래킷 및 슬래브폼 지지장치(10-1379897), 시스템 비계의 수평재(10-2287422) 등 다수의 등록특허로 뒷받침된다. 최근에는 급열양생 거푸집 시스템(10-2620286), 인양시스템 일체식 낙하방지망 및 설치방법(10-2597764)을 확보하여 동절기 시공성과 현장 안전성을 동시에 제고한다. 조선용 가설재 부문에서는 LNG운반선 탱크 내부단열재 부착용 특수족장을 제작하며, 아파트 10층 높이에 2만 개 이상을 조립하는 고정밀 시스템 기술을 보유해 국내 최대 종합 생산 규모를 갖추고 있다.

■ 알루미늄 일관생산 및 모듈러 건축 기술

동사는 알루미늄 소재의 용해-주조-압출로 이어지는 일관생산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임대자산과 결합되어 폼웍 임대사업의 핵심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소재 · 공정 역량은 거푸집 구조(10-1612499), 클램프 유닛 및 트러스장치(10-1579961), 건축용 케이지장치(10-2028013) 등 구조 설계 기술로 확장된다. 모듈러 건축 부문에서는 공장에서 공정의 약 80%를 정밀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기와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며, 자체 개발한 '금강 모듈러 코디네이션 공법' 특허와 구조 일체형 패널라이징 옥탑 모듈러 시공, 플랫폼 승강 시스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줄기초 모듈 설치 방법 등 연구개발 실적을 축적한다. 아울러 BIM · AI 기반 설계 최적화 기술을 도입하여 설계 정확성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6. 모듈러 건축 시공 예시

자료: 동사 홈페이지

■ 그룹 정밀가공 기술(선박엔진밸브·형단조)

그룹 차원의 정밀가공 역량은 종속회사를 통해 구현된다. ㈜케이에스피는 선박용 저속엔진의 핵심 부품인 배기밸브 스핀들과 배기밸브 컴플리트를 생산하며, 용접 · 가공 · 연마 등 전(全)공정을 자체 수행하는 국내 유일 업체로 파악된다. 특히 Everllence(구 MAN Energy Solutions)와 WINGD의 제조 승인을 모두 보유하여 HD현대중공업 등 국내외 엔진 제조사와 안정적 거래를 유지하며, 중속 엔진밸브 국내 시장에서 약 60~70%의 점유율을 확보한다. 삼미금속㈜ · 대영산업㈜을 통한 형단조 부문에서는 국내 최대급 해머 라인을 기반으로 조선 · 플랜트용 플랜지 · 링기어와 K2 전차 · K9 자주포용 부품을 국산화 개발 · 생산하며, 자체 금형구조 개선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다.

그림 7. 용해/압출 생산설비 현황

자료: 동사 홈페이지

■ 연구개발 활동

동사는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보증 체계 확립과 중장기 발전토대 마련을 위해 2005년 9월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사무소 기술개발팀을 중심으로 고층 · 대형화 건설시장에 부합하는 시스템 개발과 신규사업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건설시장 신기술 대응 시스템 개발, 기존제품 품질 향상 및 설비 합리화, 산학 공동연구 및 신제품 개발, 신규사업 진출 관련 연구 강화로 설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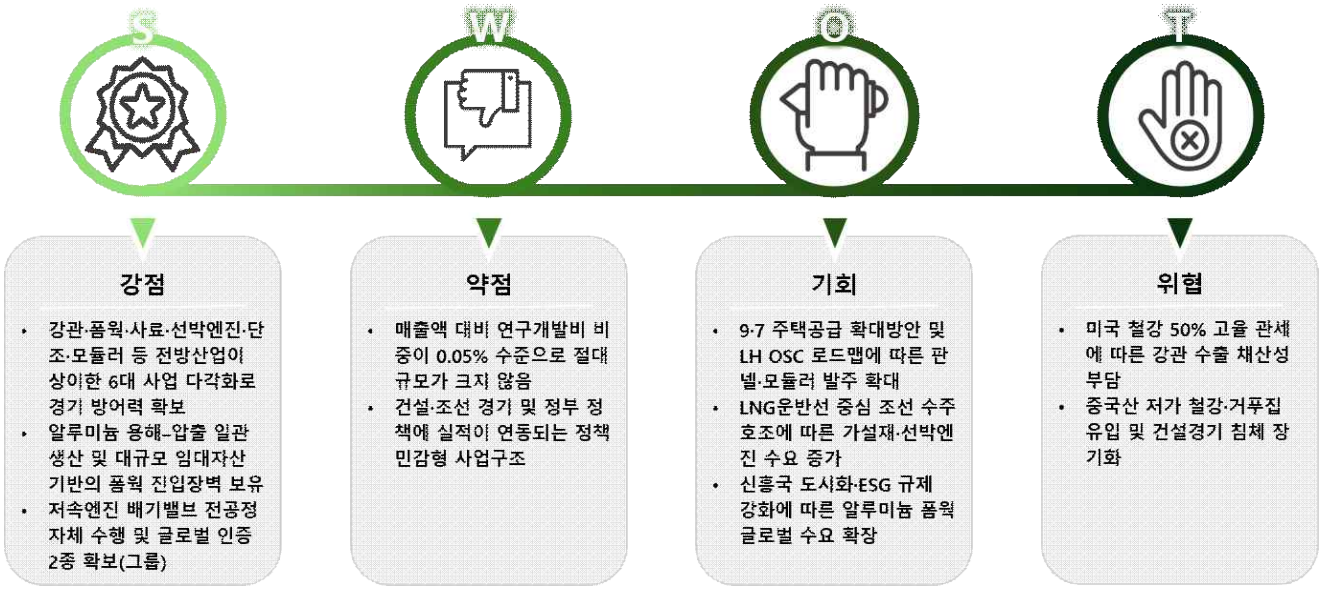
그림 8. 신규 브랜드 런칭

자료: 동사 홈페이지

동사의 최근 주요 연구개발 실적으로는 급열양생 거푸집 시스템, 인양시스템 일체식 낙하방지망, 구조 일체형 패널라이징 옥탑 모듈러 시공 방법, 플랫폼 승강 시스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줄기초 모듈 설치 방법 등이 특허 출원 · 등록으로 이어졌다. 이는 폼웍 · 가설에서 모듈러로 이어지는 기술 연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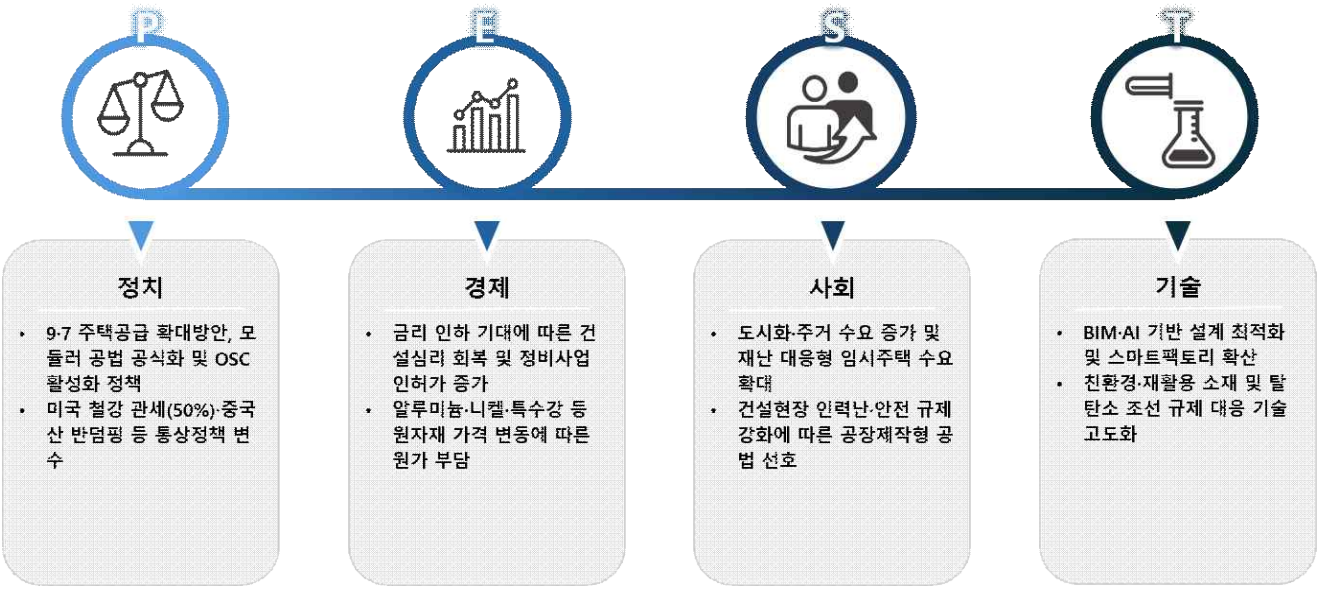
금강공업(014280)

■ SWOT 분석



◆ Strength	6대 사업 다각화와 일관생산·인증 기반의 구조적 진입장벽
◆ Weakness	낮은 R&D 비중과 정책·경기 연동형 실적 구조
◆ Opportunity	주택공급 확대·조선 사이클·글로벌 폼웍 수요의 삼중 성장동력
◆ Threat	미국 관세·중국산 저가 공세·건설경기 침체

■ PEST 분석



◆ Political	모듈러 공식화·OSC 정책 수혜와 통상정책 변수 병존
◆ Economic	금리 인하 회복 기대와 원자재 변동성 상존
◆ Social	도시화·안전·인력난이 공장제작형 공법 채택을 촉진
◆ Technological	BIM·AI·친환경 소재 기술이 폼웍·모듈러 경쟁력을 강화

IV. 재무분석

사업 다각화 기반 안정적 매출과 1분기 영업이익 회복세 시현

동사는 6개 사업부문과 5개국 해외법인을 거느린 건설소재 그룹으로, 2025년 연결 매출액 8,021.6억 원, 영업이익 105.0억 원을 기록하였다. 또한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액 1,966.7억 원, 영업이익 132.4억 원, 당기순이익 171.5억 원을 시현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87.5% 증가한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 7개 사업부문 기반 매출 구조 및 연도별 매출 추이

동사의 2025년 매출은 사료(35.3%)·판넬(25.7%)·강관(11.9%)·단조(11.7%)를 중심으로 선박엔진·가설재·모듈러 등 다부문에 고르게 구성되었다.

동사의 연결 매출액은 2023년 8,568.9억 원에서 2024년 8,013.5억 원으로 6.5%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8,021.6억 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5년에는 강관(+9.3%)·선박엔진(+12.1%)·단조(+5.0%) 부문이 성장한 반면 판넬(−8.1%)·사료(−3.4%) 부문이 조정되며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시현하였다.

■ 수익성 조정 흐름과 1분기 영업이익 87.5% 회복세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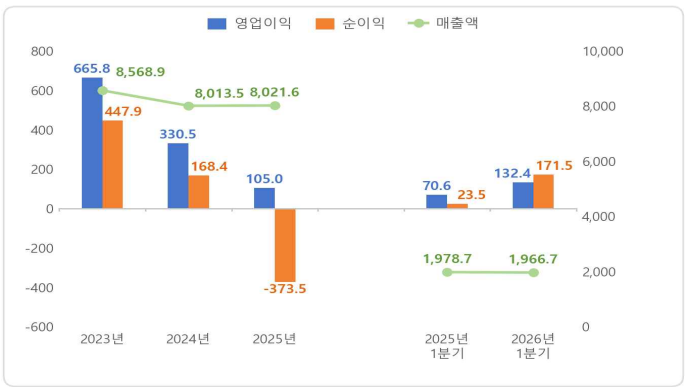
2024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555.4억 원 감소한 8,013.5억 원을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330.5억 원, 당기순이익은 168.4억 원을 시현하였다(매출액증가율 −6.5%, 영업이익률 4.1%, 순이익률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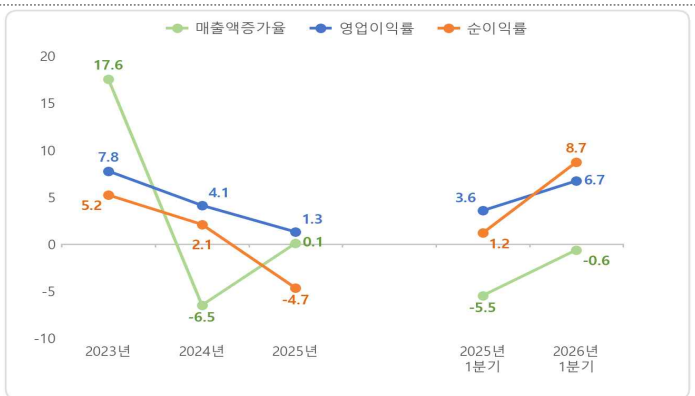
2025년 동사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8.1억 원 증가한 8,021.6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영업이익은 105.0억 원으로 축소되었고, 영업외손익 등의 영향으로 당기순손실 373.5억 원을 나타내었다(매출액증가율 0.1%, 영업이익률 1.3%, 순이익률 -4.7%).

2026년 1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한 1,966.7억 원을 나타낸 가운데, 영업이익은 13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5% 증가하였다. 당기순이익은 17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된 흐름을 시현하였다.

동사는 강관·거푸집 중심의 전통 사업과 모듈러·글로벌 사업의 균형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및 수익성 개선이 전망된다.

그림 9. 동사 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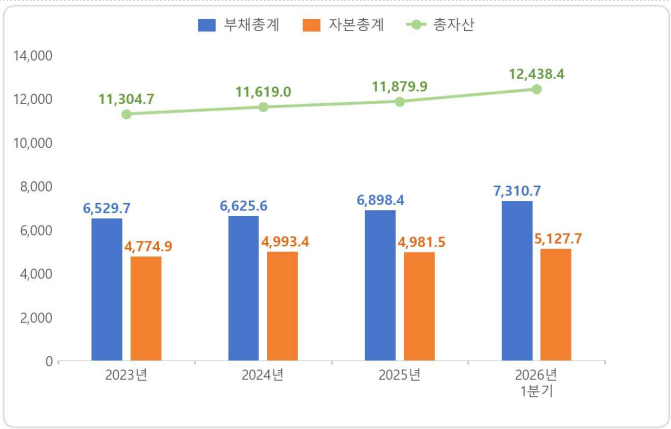
■ 자기자본 안정 흐름과 1분기 자산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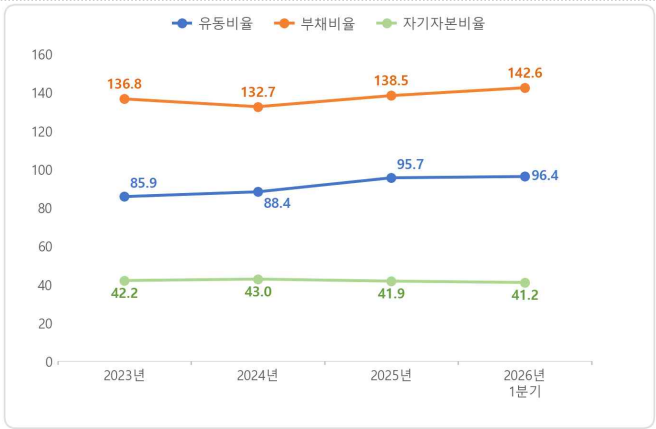
2024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314.3억 원 증가한 11,619.0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95.9억 원 증가한 6,625.6억 원, 자본총계는 218.5억 원 증가한 4,993.4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2.5%p 상승한 88.4%, 부채비율 4.1%p 하락한 132.7%, 자기자본비율 0.8%p 상승한 43.0%).

2025년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260.9억 원 증가한 11,879.9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272.8억 원 증가한 6,898.4억 원, 자본총계는 11.9억 원 감소한 4,981.5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7.3%p 상승한 95.7%, 부채비율 5.8%p 상승한 138.5%, 자기자본비율 1.1%p 하락한 41.9%).

2026년 1분기 동사는 총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543.2억 원 증가한 12,438.4억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총계는 477.9억 원 증가한 7,310.7억 원, 자본총계는 65.4억 원 증가한 5,127.7억 원을 나타내었다(유동비율 5.2%p 상승한 96.4%, 부채비율 7.6%p 상승한 142.6%, 자기자본비율 1.4%p 하락한 41.2%).

그림 10. 동사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 재가공

표 3. 동사 요약 재무제표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8,568.9	8,013.5	8,021.6	1,978.7	1,966.7
매출액증가율(%)	17.6	-6.5	0.1	-5.5	-0.6
영업이익	665.8	330.5	105.0	70.6	132.4
영업이익률(%)	7.8	4.1	1.3	3.6	6.7
순이익	447.9	168.4	-373.5	23.5	171.5
순이익률(%)	5.2	2.1	-4.7	1.2	8.7
부채총계	6,529.7	6,625.6	6,898.4	6,832.8	7,310.7
자본총계	4,774.9	4,993.4	4,981.5	5,062.3	5,127.7
총자산	11,304.7	11,619.0	11,879.9	11,895.2	12,438.4
유동비율(%)	85.9	88.4	95.7	91.2	96.4
부채비율(%)	136.8	132.7	138.5	135.0	142.6
자기자본비율(%)	42.2	43.0	41.9	42.6	41.2
영업현금흐름	493.8	130.1	218.7	92.1	-101.2
투자현금흐름	-247.7	-622.2	-140.0	67.4	77.9
재무현금흐름	-126.4	346.0	129.8	176.6	281.3
기말 현금	1,021.2	874.6	1,072.2	1,211.3	1,349.7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 재가공

■ 동사 실적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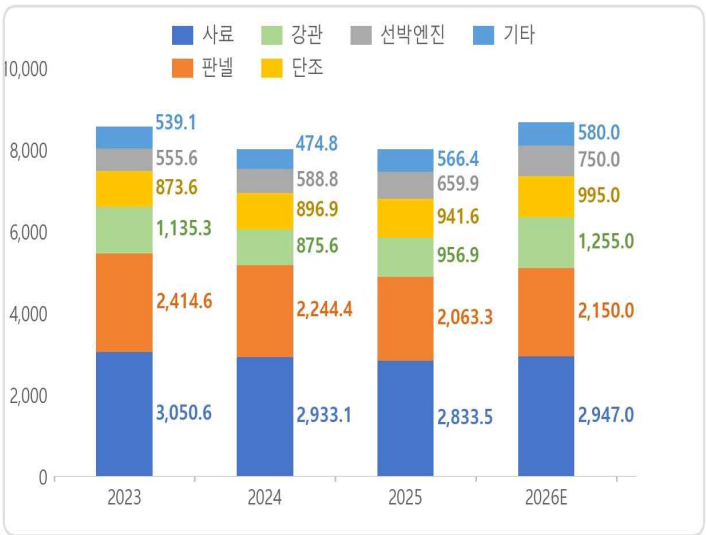
동사는 해외 알루미늄 폼워크 법인 활성화와 모듈러 사업 확대를 통해 외형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모듈러 · 거푸집 시장의 구조적 성장과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거푸집 · 가설재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

동사는 미국 · 베트남 · 인도 · 말레이시아 · 케냐 등 전략 거점국에 통합 영업 ·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거푸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 결과 2025년 해외 매출이 전년 대비 22.8% 증가한 1,912억 원(비중 23.8%)으로 확대되었으며, 미국(+51.8%) · 인도(+68.0%) · 말레이시아(+24.2%) 등 주요 거점의 외형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된다. 동사는 다국적 거래 환경에서 환율 · 관세 등 외생 변수에 대응해 공급 채널 다변화와 현지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생산기지 확충을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로 글로벌 시장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의 모듈러 부문 매출은 2025년 138.1억 원으로 전년(75.5억 원) 대비 82.9% 증가하였으며, 모듈러 계약부채도 2024년 7.5억 원에서 2025년 67.3억 원으로 큰 폭 증가하며 향후 매출로 이어질 수주 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5년 7월과 2026년 6월에 충북 보은 소재 생산공장을 매입해 모듈러 생산능력 확충에 활용할 계획으로, 공장 사전제작 역량 강화를 통해 모듈러 시장 성장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푸집 사업에서 축적한 시공 노하우와 결합한 모듈러 통합 솔루션은 중장기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며,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탈현장 건설(OSC) · 모듈러 활성화 정책도 동사 모듈러 사업의 수요 기반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의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되며 실적 반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업부문별 실적 추이와 시장 성장률을 반영하여 2026년 매출액은 약 8,677억 원 수준이 전망되며, 해외 수출 확대와 모듈러 고성장, 수익성 개선 흐름에 힘입어 중장기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

그림 11. 동사 사업부문별 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연도별 실적 및 전망

항목	2023	2024	2025	2026E
매출액	8,568.9	8,013.5	8,021.6	8,677.0
사료	3,050.6	2,933.1	2,833.5	2,947.0
판넬	2,414.6	2,244.4	2,063.3	2,150.0
강관	1,135.3	875.6	956.9	1,255.0
단조	873.6	896.9	941.6	995.0
선박엔진	555.6	588.8	659.9	750.0
기타	539.1	474.8	566.4	580.0

2026년 실적 및 전망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5.12.), 분기보고서(2026.03.), NICE평가정보㈜ 재가공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정책·조선 사이클 수혜와 사업 재편이 이끄는 실적 회복 국면

동사는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LNG선 발주 사이클을 성장 모멘텀으로 삼아 판넬·모듈러·선박엔진 부문의 실적 회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기지 확충과 종속회사 재편으로 다각화 시너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판넬·모듈러 사업 모멘텀

동사는 2025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을 최대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도권 중심 2030년까지 135만 호 신규 착공 · 27만 호 공공 물량 확대 및 9 · 7 대책의 모듈러 · 공업화 공법 공식화, LH의 '2030 OSC 주택 로드맵' 추진은 국내 최고층 모듈러주택 시공 실적과 자체 공법 특허를 보유한 동사에 직접적인 수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응하여 동사는 건설사업부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오르디온(ORTHION)으로 새롭게 정립하며 기존 자재 · 공급 중심의 도급형 구조에서 주거 브랜드 사업자로의 인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발주 중심의 수주 구조에 민간 및 브랜드 기반 사업의 비중을 더해 수익성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려는 중장기 전략으로 판단된다.

■ 생산기지 확충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동사는 사업 효율화와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5년 7월과 2026년 6월에 충북 보은 소재 생산공장을 매입해 모듈러 생산능력 확충하는 한편, 종속회사 ㈜케이에스피가 당기 중 대영산업㈜ 지분을 취득함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16개사로 확대되며 단조 부문이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네시아 법인 지분은 2025년 9월에 동사 말레이시아법인에 매각하여 해외사업을 선택과 집중 방향으로 재편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정책 수혜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그림 12. 건설사업부 공장 현황(보은1공장, 보은2공장)

자료: 동사 홈페이지

■ 조선 슈퍼사이클 수혜와 대미 관세 대응

동사는 조선업 회복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사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LNG운반선 및 친환경 선박 중심의 국내 조선 수주 호조에 힘입어 가설재 부문의 LNGC 특수족장과 선박엔진 부문의 저속엔진 배기밸브 수요 기반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50% 고율 관세를 시행(2025년)하고 있어 강관 수출 채산성에는 부담이 상존하나, 동사는 대미 수출 물량 확대와 해외 생산기지 · 현지 파트너십 강화, BIM · AI 기반 설계 최적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방어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공업(014280)

■ 최근 뉴스 및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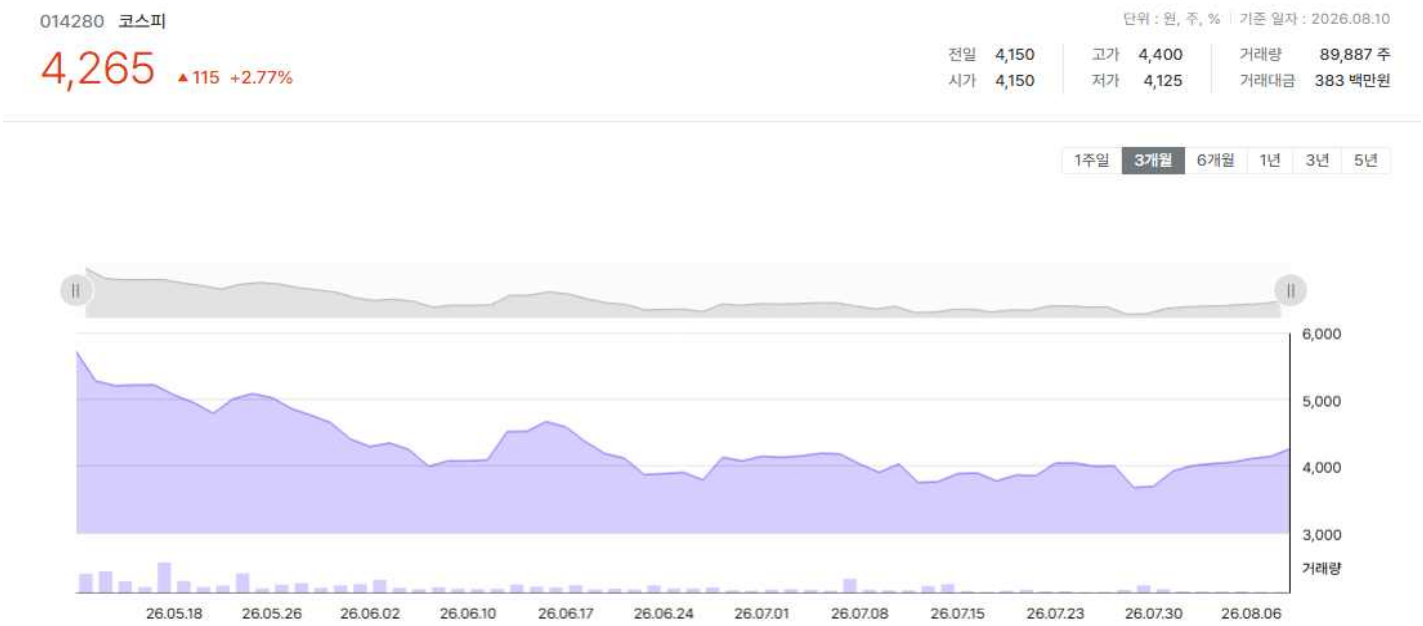
□ 프롬프트 : 동사의 최근 뉴스와 향후 전망에 대해 알려주세요
☑ 생성형 AI 답변 :
"금강공업은 최근 선박엔진 핵심부품 사업 경쟁력 강화와 전사적 AI·디지털 전환을 통한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선업 슈퍼사이클과 친환경 선박엔진 수요 확대에 힘입어 선박엔진 부문의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ChatGPT

증권사 투자의견(하단)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6개월 간 발간보고서 없음.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자료: NICE Bizline(2026.08.1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 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금강공업	X	X	X